

# 전남교육청, 올 첫 추경예산 3150억 증액...5조2천억 편성

## 학생 학습권 보장·복지 증진 중점 교육환경 개선·시설 보완 우선 배정

전남교육청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 4조8850억원 대비 3150억원(6.4%) 증액된 5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재원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848억원, 자체수입 163억원, 기타 19억원, 기금 전입금 1120억원이다.

도 교육청은 학생 중심의 교육사업이 안정적인 운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신규 사업보다는 노후 시설 보수와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했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최우

선으로 고려,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더욱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교육 본연의 목적 실행도 힘썼다.

학교 신·증설 및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등 시설사업의 완공이 예정됨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20억원과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600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이를 통해 교육시설의 현대화와 안전 강화를 추진,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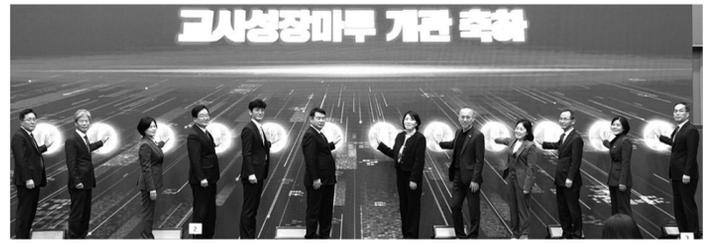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교육발전특구 사업 241억원, 미래교육 강화를 위한 전남 의(義)교육 6억원, 기후변화 환경교육 2억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 6억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7억원, 초등 1·2학년 수영 실기교육 7억원 등을 편성했다.

핵심사업인 글로벌 교육 강화를 위한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 지원 3억원, 글로벌신산업창업프로그램 운영 2억원도 포함됐다.

학생안전과 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돌봄교실 주변 안전 강화를 위한 CCTV 교체 3억원, 급식 기구 확충 및 교체 8억원,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13억원, 성소속증 검사 및 학생 정신건강 관리 4억원, 특수교육복지 지원 8억원 등을 편성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국제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세 둔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연장 여부, 고교 무상교육 일몰 등으로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 같은 여건 속에서도 전남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글로벌 교육을 전남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중 기자 bigkim@kwangju.co.kr



지난달 31일 교사성장마루 개관식에서 이정은 교육감을 비롯한 내빈들이 축하 행사를 진행했다.

## 교원 역량 높인다...광주 '교사성장마루' 개관

### 수업 공유·연구 등 소통 공간

광주지역 교원들이 수업·연구활동을 통해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사성장마루'가 본격적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은)은 최근 옛 경양초 부지에서 이정은 교육감, 문인 북구청장, 교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사성장마루 개관식'을 개최했다.

교사성장마루는 교원들이 수업 공유, 연구 등을 통해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설은 지상 3층 규모로, 1층은 교원 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교육나눔마루', 2층은 다양한 규모의 연수·회의가 가능한 '수업소통실', '수업공감실'이, 3층은 연극, 공동체 놀이, 악기 연주회 등이 가능한 '감성마루'와 교육콘텐츠 제작 공간 '창작마루' 등으로 구성됐다.

시교육청은 교사성장마루가 광주지역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적으로 성장하는 발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원연구회 조은희 교사는 "다른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연구활동을 하고 싶어 도마뱀 공간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며 "교사성장마루 개관으로 다양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정은 교육감은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성장이 중요하다"며 "선생님들이 교육적으로 도전하고 원하는 것을 연구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주회 등이 가능한 '감성마루'와 교육콘텐츠 제작 공간 '창작마루' 등으로 구성됐다.

시교육청은 교사성장마루가 광주지역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적으로 성장하는 발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원연구회 조은희 교사는 "다른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연구활동을 하고 싶어 도마뱀 공간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며 "교사성장마루 개관으로 다양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정은 교육감은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성장이 중요하다"며 "선생님들이 교육적으로 도전하고 원하는 것을 연구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송원대, 철도종합실습실 개소...미래 인재 양성 교육 본격 가동

### 철도 현장 중심 실습장비 갖춰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가 미래 철도산업을 이끌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본격 가동했다.

〈사진〉 송원대는 최근 송원대 청송관 1층에 철도종합실습센터(실습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철도종합실습센터는 제2종 철도차량에 적용되는 주요 장치의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제 부품과 함께, 송강장안전문(PSD), 선로전환기, 철도차량 연결기 등 철도 현장 중심 실습장비를 갖추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무상 기증 받은 전기기관차 운전실습장비도 함께 설치돼 재학생과 일반인 모두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실전 훈련이 가능하다.

송원대는 실습센터 개소로 철도교통관제와 제1종 철도차량, 제2종 철도차량을 아우르는 통합 실습 환경을 구축해 '철도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송원대 최수태 총장은 "철도종합실습센터는 미래 철도교통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 양성과 실무 중심 교육을 위한 기반이다. 이번 개소식은 철도 교육 혁신의 첫걸음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산학 협력과 실습 강화를 통해 철도 전문인력 양성 중심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철도운전·관제시스템학과 권태삼 학과장은 "이번 철도종합실습센터 개소는 실습과 현장경험 중심의 철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성과이며, 학생들이 직접 교육기획과 운영 준비에 참여시켜 현장 중심의 실습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과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운영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원대는 '2025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 대학(철도 특성화) 부문에서 4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송원대학교는 철도 특성화 교육과 실무 중심의 철도 인재 양성 노력으로 코레일, 서울교

통공사, 광주교통공사, GTX-A, 경전철 등 주요 철도 운영기관은 물론, 데이터이(주) 등 산업체에도 우수 인재를 취업시키며, 철도 분야 최고 수준의 교육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송원대는 철도운전·관제시스템학과를 비롯하여 철도경영, 철도안전, 철도차량분야의 학과를 운영하며 철도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철도운전 및 관제사 자격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송원철도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철도 관련 공기업 및 민간기업으로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호남대 창업보육센터, 2024 중소벤처기업부 경영평가 '우수'

호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센터장 김영현)가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4개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호남대 창업보육센터는 사업화 지원실적 및 내외부 교류 실적 등에서 뛰어난 경영성과와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사진〉 호남대 창업보육(BI)센터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교육, 멘토링, 투자유치 지원 등 입주기업 및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호남대 창업보육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보육센터 내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화 지원비를 확보, 경영·마케팅·기술개발 등 맞춤형 기업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보

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등 내실 있는 입주기업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및 창업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호남대 김영현 센터장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광산구청, 광주테크노파크,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 호남대 RISE사업단 등과 협력하여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해, 2025년에는 실적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강화, 투자유치, 수출, 고용인원 창출 및 매출액 향상 등 입주기업의 성장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남대,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최종 선정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지원하는 '2025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총괄책임자 이운성 산학협력단장)'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기술혁신형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 인프라와 전문 인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본 사업은 한국연구재단과 과학기술사업화진

흥원이 공동 주관하며, 실험실 창업에 특화된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중점 창업지원 정책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우수 실험실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수의 연구중심대학들이 참여하여 다른 때보다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져 전남대학교의 실험실창업 지원체계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남대학교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48개

의 예비창업실험실을 발굴했으며, 이 중 19개 실험실이 실제 창업기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이뤘다. 이와 함께 투자 유치 및 고용 창출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2025년에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컨소시엄을 구성, 1차로 21개의 예비창업실험실을 선발해 비즈니스모델 사전기획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2차 평가를 통해 최종 12개 실험실을 선정, 최대 5000만 원의 연구개발(R&D) 및 장단지 원금을 제공하며, 맞춤형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능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입니다.